

안전띠 안매고 신호 무시...전남 교통문화 ‘엉망’

국토부, 교통문화지수 실태 조사...전국 시·도중 ‘꼴찌’

광주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점유 등 10위 추락

전남지역 교통 문화가 엉망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 문화 지수는 2년 째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의 교통문화지수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국제대회를 앞두고 행정기관, 경찰의 홍보·계도활동 뿐 아니라 지역민들의 의식 전환이 시급하다.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지역의 교통문화지수는 68.5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76.7점에 비해 8.2점이 낮고, 전년도(73.2점·17위)보다 4.7점 하락한 것이다.

전남은 이번 조사에서 ▲운전행태(28.7점·안전띠착용률, 정지선 준수 등 5개 항목) ▲교통안전(18.2점·10만 명당 사고·사망자·보행 사망자 건수 등 3개 항목) ▲보행행태(11.1점·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등에서 꼴찌를 벗어나지 못했다. 전남이 높은 평가(1위)를 받은 항목은 횡단 중 스

마트기기 사용률 밖에 없었다.

교통문화 수준이 낮다보니 ‘10만 명당 보행자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각각 24.1명과 8명을 기록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2년 21.5명(15위) ▲2013년 23.9명(17위) ▲2014년 24.1명(17위)로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광주도 자랑할 수준은 못된다. 지난 2012년 교통문화지수가 80.6점으로 3위에 올랐지만 점차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광주의 교통문화지수는 지난 2013년 78.4점(10위), 2014년 80점(10위)로 급격히 떨어졌다.

광주가 저조한 평가를 받은 항목은 ‘장

어진 전용 주차구역 불법 점유율’과 ‘스쿨존 불법주차 점유율’이다. 광주는 두 부문에서 각각 14위(51.6%), 12위(15.2%)를 기록했다.

전남지역에서는 강진군(47.1점·83개군 중 75위)의 교통문화지수가 가장 낮았고 완도군(76점·77위)은 22개 시·군 중 가장 높았다. 광주시 서구는 광주에서 가장 낮은 교통문화 수준을 보였고 전국 69개 구(區) 중에서도 65위(74점)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7년부터 교통안전공단에 조사를 의뢰해 전국 229개 시·군·구의 운전자·보행자를 상대로 안전띠 착용률, 신호준수율, 횡단보도 신호 준수를, 차량 신호 준수율 등 11개 항목을 정기적으로 조사한 뒤 발표해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교통문화지수는 교통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을 기초로 직접 조사한 것”이라며 “보다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홍보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8

해질녘 17:50

달 뜨는 시간 08:31

달 지는 시간 20:00

출근길 서둘러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비/눈온후	1/6	보성	비온뒤	2/7
목포	비/눈온후	1/6	순천	비온뒤	3/7
여수	비온뒤	3/8	영광	비/눈온후	0/5
나주	비/눈온후	0/6	진도	비온뒤	3/6
완도	비온뒤	3/6	전주	비/눈온후	1/5
구례	비온뒤	0/6	군산	비온뒤	0/5
강진	비온뒤	3/6	남원	비온뒤	-1/4
해남	비온뒤	4/6	흑산도	비온뒤	4/6
장성	비/눈온후	0/6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5
남부 먼바다	북서~북 1.5~2.5	북서~북 1.5~3.0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5
서부 먼바다(동)	서~북서 1.0~2.0	북서~북 1.5~2.5
면바다(서)	북서~북 1.0~2.0	북서~북 1.5~2.5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3:06 15:47	08:26 21:00
여수	10:34 22:43	03:57 16:36

◇주간 날씨

23(금)	24(토)	25(일)	26(월)	27(화)	28(수)	29(목)
-3/7	1/8	4/8	5/7	4/8	2/6	0/5

◇생활지수

25

10

20

차기 검찰총장 물망 국민수 서울고검장 사의 표명

다음주 고위직 인사 앞두고
검사장급 이상 추가 사퇴 전망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두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꼽히던 국민수(5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국 고검장은 최근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용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곧 정식으로 사표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1987년 육군 법무관으로 검사생활을 시작한 국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와 대검 기획조정부장, 청주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차관 등 요직을 거쳤다. 검찰 정거인사를 앞두고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의 사의 표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 고검장은 연수원 동기인 김수남(56)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목돼 왔다. 이 때문에 검찰 내에서는 다소 의외라는 반응도 있다.

고검장급 고위간부가 용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검사장 승진 인사를 시작으로 한 검찰 간부인사가 이르면 다음주부터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앞서 16~17기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의 추가 사퇴도 전망된다. 부장검사 이하 인사는 다음달 설 연휴를 전후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급인 이승환(46·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건설본부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하는 등 중간간부들의 사직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신춘문예·광일문학상 시상

‘금남로 가는 길’ 제18집 출판 기념식도

2015년 광주일보신춘문예 및 제10회 광일문학상 시상식이 21일 오후 광주일보 본사 16층 회의실에서 수상자와 가족, 광주일보문학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또 이날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작가들의 작품 모음집 ‘금남로 가는 길’ 제18집 출판 기념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2015년 신춘문예 단편소설 부문 당선자 이연초(53)씨에게 상패와 상금 300만원, 시 부문 당선자 임주아(28)씨와 동화 부문 당선자 김경락(36)씨에게 상패와 상금 각각 100만원이 수여됐다. 광일문학상 열 번째 주인공 김현주(53)씨에게도 상패와 상금 100만원이 수여됐

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광일문학상은 광주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의 모임인 광일문화회(회장 채희운) 회원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상해 오고 있다.

신향락 광주일보 주필은 인사말에서 “치열한 문학정신과 감수성으로 무장한 문학인들이 새로운 작품으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 달라”며 “광주일보와 저매지 ‘예향’은 신춘문예와 광일문학상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조업금지 경고 불만...“배가 침몰하고 있다” 거짓 조난신고

여수해경, 50대 선장 첫 구속

조업이 금지된 해역을 지나던 중 해경으로부터 조업금지 경고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거짓 조난신고를 한 50대 선장이 이례적으로 구속됐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21일 “배가 침몰 중이니, 구조해 달라”고 허위로 조난신고를 한 혐의(전파법 등 위반)로 총합보령선적 근해통발어선 11(급) H호 선장 심모(52)씨를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20분께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고도항에 자신의 배를 정박해놓고 선박 정보를 자동 발신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끈 뒤 선장실에서 무전기를 이용, 주변 선박에 “배가 침몰 중이다. 122 구조대를 불러 달라”고 허위 조난구조요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지난달 28일 조업금지구역인 여수시 삼산면 백도 인근 해상을 지나던 중 해경 등으로부터 “백도 인근 200m 해역에

선 조업이 금지돼 있으니, 다른 해역으로 이동하라”는 경고방송을 들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심씨가 침몰 장소의 위치를 계속 바꾸는 점 등을 이상히 여기고 추궁한 끝에 허위 조난신고임을 알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허위 신고가 자칫 위급한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여수=김청화기자 chkim@kwangju.co.kr

200억 한정

부동산 담보대출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상기 금리는 APT담보대출 기준이며, 담보물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근린상가
단독주택
나대지
원룸

담보 비율 : 최대 70%
최저 연 3.8%~

신용대출
(급여소득자)
(연금수급자)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대출기간 : 최대 5년
연금리 : 최저 7.0%

빚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옆)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